

‘스펙태클·인턴십’ 롯데, 채용 진행

12개 계열사 17개 직무 선발
동계 인턴십전형 복수지원 허용

롯데는 14일 ‘2019년 하반기 롯데 SPEC테클전형 채용’ 사전 과제를 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과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2019년 동계 인턴십전형 채용’에 대한 지원서 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먼저 롯데 고유의 블라인드 채용인 스펙테클 전형은 학벌이나 스펙 중심의 서류 전형에서 벗어나 지원자 직무 수행 능력과 역량만을 평가해 실무형 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하반기 스펙테클 채용에 참여하는 회사는 롯데제과, 롯데정보통신, 롯데백화점, 롯데커머스, 롯데면세점, 롯데케미칼 등 12개 계열사이며, 채용 직무는 17개다.

전형 절차는 ‘과제심사 → L-TAB (조직/직무적합도 진단 중 조직적합도 진단만 진행) 및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스펙테클 채용 지원 방법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홈페이지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고, 지원 회사/직무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과제는 ▲친환경 포장 아이디어를 적용한 과자 패키지 디자인 제안(롯데제과) ▲식품 특화 서비스 제안(롯데커머스) ▲본인이 경험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출(롯데정보통신) ▲럭셔리 브랜드 트렌드를 반영한 컬래버 기획(롯데백화점) 등 지원 회사/직무에서 제시하는 주제에 대한 기획서 또는 제안서 등이다. 롯데는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과제에 이름, 사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출신 학교명과 같은 지원자 본인의 스펙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면접 전형에서는 엄격한 직무역량 검증에 위해 면접 당일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습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사별로 선택적으로 사전 제출과제에 대한 심화 프레젠테이션을 추가로 면접에 반영할 계획이다. 롯데는 면접에서 지원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함께 창의성, 열정 등 개인 역량을 세밀히 살핀 뒤면



롯데 하반기 인턴스펙테클 포스터

접 합격자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지원 회사별로 하반기 일반전형 합격자와 함께 내년 1월 A grade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거나, 동계 인턴십전형 합격자와 함께 내년 1~2월 인턴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동계 인턴십 전형은 롯데칠성음료(주류BG), 롯데마트, 코리아세븐, 롯데면세점, 롯데건설 등 15개사가 진행하며, 채용 직무는 25개이다. 10월 24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이후 서류전형 → L-TAB (조직/직무적합도 진단) →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면접전형에 합격하면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여 8주간의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하게 되며, 이후 실습평가와 최종 면접을 통해 A grade 신입사원으로 전환 채용될 수 있다.

롯데는 이번 동계 인턴십전형부터 지난해 일반전형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에서 최대 2개의 회사나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복수 지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류전형 심사 시 복수지원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만약 2개의 지원사항 모두 합격권인 경우 사전에 지원자가 선택한 우선순위에 따라 한 회사에 대해서만 합격하게 된다. 롯데는 복수 지원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 채용담당자는 “동계 인턴십 전형의 경우 이번 전형부터 복수 지원을 허용한 만큼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초등돌봄 수요파악’... 범부처 합동 조사

교육부, 내년 초등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부는 2020학년도 초등학생의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15일~25일까지 모바일을 이용해 초등학교 1~5학년과 내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새학기 초등돌봄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시기를 10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결과는 11월에 제공할 계획이다. 조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시도교육청,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전체적인 수요파악을 위한 조사이고, 돌봄신청 조사는 이후 사업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국회의원, 헛방 국감 대신 공부 합시다



매년 국방분야 국정감사를 보고 있으면, 삶은 고구마를 삼켜 숨이 막히는 느낌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라는데 국방에 국자는 알고 떠드는 꼴까.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 9일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을 통해, “전문학적 비용을 들여 해외에서 구매한 무기들의 단종 또는 폐업 시 수급 문제에 대해 군이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무기체계는 해군의 링스 헬기의 대함 유도탄. 일부 언론들은 이 유도탄의 절반이 사용불가라며 해군이 방산비리의 책임이 있다는 논의로 보도했다. 링스 헬기에 장착되는 Sea Skua 미사일은 1991년 링스헬기와 함께 도입됐다. 최초 도입 시기 기준으로 우리 군에 들어온지 28년이나 된 무기체계다.

무기체계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저장수명과 성능보장 기간이

있다. Sea Skua 미사일의 저장수명은 10~15년 정도다. 과연 해군이 관리를 못해 사용불가 상태가 됐을까.

염분이 많은 해상에서 밀봉저장이 아닌 외부장착 상태에서 수명주기를 넘긴 무기체계가 절반이상 운용 가능하다는 것은 해군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관리운용해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해군은 지난 2017년 이미 이를 대체할 무기구매 요청을 합동참모본부에 보냈다고 한다. 나랏일을 하는 국회의원의 무지가 야전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부분이다. 같은날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수도권 대공방어를 막는 ‘천마’ 미사일 운영 체계가 DOS 체계(286CPU급)라며, 성능개량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무기체계의 꾸준한 성능개량은 분명 필요한 점이지만, 운영체계가 286급이라고 지적한 것은, 분명 문제다. 극한의 환경에서 운용되는 군용장비는 장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비의 표준화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부품을 갈아 끼우면 장비의 신뢰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힘들다. 윈도우를 쓰면 모래시계가 한없이 돌아가고, 블루

스크린이 뜰 수도 있다. 즉각대응이란 건 기대하기 힘들겠지.

참고로 최첨단이라고 불리는 우주왕복선도 1986년 인텔이 출시한 80386 칩을 쓴다. 국회의원들은 말을 하기 전에 공부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

누가 알려준다고 뉘름 생으로 먹으면 탈이 난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이번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아닌 상상의 나래를 편 국회의원의 이야기도 해볼까 한다.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경항공모함이 아닌 7만톤급의 중형항모급 능력을 갖춘 계획으로 항모 전력화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가 7만2000톤급이다. 작전반경이 1만해리(1만8520km)에 달한다. 한반도 자체가 떠 있는 항모의 역할을 하는데 과연 이런 항모가 필요한걸까. 이 항모를 획득하는 비용만 5조4000억원 정도가 든다. 운용비는 별도다. 나랏기둥을 뽑아 이를 쭈시는 격이다.

주목받기 위한 국감이 아닌, 진단하고 제시하는 국감이 됐으면 한다.

/caotinn@

사학비리 저질러도 교육부, ‘경고·주의’만

고발·수사 의뢰 건 중 41% 처벌 불

교육부에 수백건의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됐지만 교육부가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의 사립대 감사 결과 339개 대학에서 회계 부정 4528건이 저질러졌고, 비위 금액은 4177억원에 이르렀다. 이들 중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이 사실상 징계로 보기 어려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가 비위 적발 사립대를 검찰

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 조치한 건 중에서도 41%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실형이나 오테라도 수습역원에 달하는 비위에 벌금 몇백만원으로 끝났다. 이에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신고된 비위 건에 당사자인 대학과 법인을 직접 조사하기보다는 유선·서면으로 조사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 처리 현황’에 올해 접수된 150건의 신고 중 55건을 유선·서면·대학 자체 조사만으로 종결 처리했다. /손현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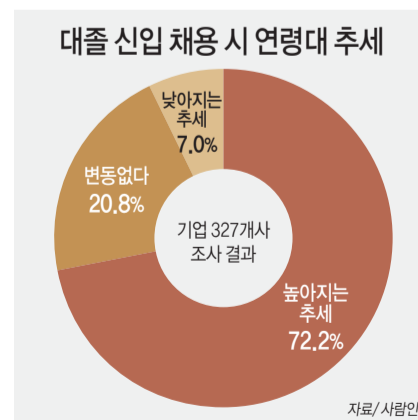
대졸 신입 연령 ↑... 30대 채용경험 72%

사람인, 인사담당자 327명 설문

대졸 신입 지원자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72.2%는 ‘30대 이상 신입사원 채용 경험’이 있었다.

14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327명을 대상으로 ‘대졸 신입 채용 시 연령’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7곳(72.2%)은 최근 대졸 신입 채용 시 지원자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답했다. ‘변동 없다’는 의견은 20.8%, ‘낮아지는 추세’라는 의견은 7%였다.

연령대가 높아지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다양한 스펙 쌓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50.8%)가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취업난이 지속되서’(36.4%), ‘지원자의 눈높이가 높아서’



(35.6%), ‘휴학, 졸업유예가 보편화되어서’(34.3%),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25.4%), ‘고학력자가 늘어나서’(24.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체 기업 중 72.2%는 올해 30대 이상 신입사원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순천향대가 피규어와 홍상을 제작한다. /순천향대

순천향대 ‘맞춤형 기념품’ 3D 제작

순천향대학교 창의디자인센터는 3D 프린터 교육대상자에게 3D기술로 활용해 개인 피규어와 홍상을 제작해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센터는 기업이 원하는 설계, 디자인, 시제품 제작, 출력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엔 아산시와 천안시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3D 프린터 기초교육 실시하는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손현경 기자

덕성여대 예체능 미술실기교사 실시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강수경)는 이달 19일 2020학년도 수시모집 예체능 전형 미술실기교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시모집 예체능전형은 Art & Design대학에서 50명을 선발한다. 실기고사는 수목담채화, 색채소묘, 기초디자인, 사고의 전환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수험생은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 선택한 1개 유형에 대한 실기교사를 치르게 된다. 실기교사 반영 비율이 80%로 매우 높다. /한용수 기자 hys@